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과 관련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인식과 실태

고미영* · 채정현**

부천부곡중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and actual performance of self-supervision at school related to Home Economics

Go, mi-young* · Chae, Jung-Hyun**

*Home Economics Teacher, Bucheon Bugok Middle School**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at middle school Home Economics(HE) teachers perceive, practice and need for self-supervision at school related to HE. Questionnaires were sent by E-mail and 150 were collected.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analysis were reported using SPSS/win 10.1.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middle school HE teachers perceived that self-supervision at school was essential since it promoted self reflection of teachers themselves and improved professional skills. Furthermore, peer-coaching was highly preferred. Second, negative responses to the supervision of principal, vice-principal, and peer teachers overwhelmed positive answers. Information exchange among peer teachers was frequent, yet, approximately 22.6% of middle school HE teachers were still avoiding sharing information process for several reasons. About half of the teachers answered that all teachers needed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Third, they pointed out that self-supervision at school was not implemented well because of the lack of time due to the heavy work load, negative and passive attitude for the improvement of teaching-learning activities, administration-centered supervision that did not reflect teachers' opinion, and shortage of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support.. HE teachers perceived that peer teachers who were doing good practices were most helpful for the supervision. Also, they preferred

1) 이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2010년 KNUE 연구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2) 교신처: Chae, Jung-Hyun, San 7 Darakri Gangnaemyeon Chungbuk 363-791 The Republic of Korea
Tel: 043-230-3758, Fax: 043-231-4087, E-mail: jchae@knue.ac.kr

self-evaluation at the end of the self-supervision at school. Forth, to improve self-supervision at school, there were very high demands for reduction of administrative work, additional time, fundamental philosophy toward HE education. Fifth, the purpose and detailed plans of self-supervision were recognized as the results that were democratically derived by the HE teachers. Sixth, class inspection and informal inspection were operated once in a year, and self-training was rarely operated. Peer coaching and self-coaching were operated occasionally. Self-coaching and peer coaching were reported as the most helpful types of supervision. In addition, HE teachers answered that supervision was helpful to teaching method followed by contents, evaluation, and philosophy of education.

Key words: 가정교과(Home Economics), 자율장학(self-supervision), 중학교 가정과 교사(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 동료장학(peer-coaching)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사의 전문적 자질 중의 하나는 교육자로서 평생 동안 스스로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이다(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07; 허병기, 2009). 현대는 과거에 비해서 학습자의 요구와 교육 여건 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에 교사들은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기개발을 해야만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교사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장학이다. 장학의 최우선 목적은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수업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능력을 계발시키는 데 있다(Sergiovanni & Starratt, 2007).

교내 자율장학이란 단위 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장과 교감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서로 지도하고 조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교내 자율장학과 반대되는 장학의 개념은 교육청의 권위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활동이라 볼 수 있다. 교육청 중심의 권위에 의해서 행해지는 장학이 아닌 교내 자율장학의 주된 목적은 교사가 수업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며 다양한 장학 유형이 있다(남정걸, 2001). 교내 자율장학의 유형에는 교사 개인이 스스로 목표를 체계적으로 세우고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인 자기장학, 직접적으로 수업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제공되는 체계적인 장학활동인 수

업장학, 교사 상호간에 협동하는 과정인 동료장학, 교장과 교감이 짧은 시간동안 학급수시나 수업참관을 통하여 교사들의 수업활동과 학급경영활동을 관찰하고 이에 대하여 교사들에게 지도하고 조언하는 활동인 약식장학, 그리고 교내 자체 인사나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학교 안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활동인 자체연수가 있다(이윤식, 2007).

여러 학자들(이윤식, 2007; 주삼환, 2003a, 2003b; 허병기, 1997)은 교내 자율장학은 더 이상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장학사(관)의 지시, 감독, 통제를 받지 않고 학교의 자율성과 자유성을 보장하기에 여러 장학 방안 중에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업을 위한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데 가장 추천할만한 장학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내 자율장학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유치원(양선화, 2008; 원종선, 2005; 전금자, 2001), 초등학교(김경수, 2008; 임종일, 2003; 정구진, 1990; 정혜림, 2009; 한효수, 2000; 홍성희, 2000), 중등학교(배선애, 2001; 조현열, 2005; 최서영, 2007; 한숙경, 2003)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교과와 관련된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체육교과(김문규·문부환, 2004; 송명환, 1996; 정경미, 2002; 조순목, 1995, 1997; 최중호·김창경, 2002; 추병화, 1997)와 사회교과(모경환·박영석, 2004; 유종열, 2007), 영 어교과(강후동, 2007; 조한아름, 2009) 등에서 활발하게 행하여졌다.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연구로는 남윤진과 채정현(2008)이 행한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것이 있다. 이 연구는 교내 자율장학의 다양한 유형 중에 오직 자기장학에만 국한한 연구로서 전체적인 가정

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2007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은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의식 있는 가정인으로 교육하는 사명을 지닌 실천교과로서 성격을 살리는 수업방식을 주안점으로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8) 그 어느 때보다 가정교과의 교내 자율장학이 활성화될 것이 요구된다(채정현, 2009). 가정과 교사들의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현장의 가정과 교사들로부터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인식과 수행실태 등 전반적인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의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에 관한 인식과 수행실태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 연구 결과는 가정과 교사의 가정교과관련 전문성 신장과 수업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교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의 수행 실태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교내 자율장학

자율장학은 교육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단위 학교에서 교원들 간에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장학활동이다. 대체로 교내 자율장학의 기본 형태는 수업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약식장학, 자체 연수 등이 있다.

수업장학은 1960년대 초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개발한 교사 직전교육 프로그램에서 임상감독학(Clinicalsupervi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후에 현직교사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한 장학의 중요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수업장학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수업장학이란 교장과 교감이 주도하는 것으로 교사들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하여 개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조언하는 강력한 활동이다. 단위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수업장학은 보통은 교사들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하여 초임교사, 경력이 짧은 교사, 수업기술 향상이 필요한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이윤식, 2007).

동료장학이란 동료 교사들이 그들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여럿이 또는 짝을 이루어 상호간에 수업을 연구하거나 공개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동료전문가는 쉽게 만날 수 있고 서로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으므로 수업에 대한 조언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윤식, 2007; 주삼환, 2003b).

자기장학이란 교사 혼자서 일정한 목표를 세워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으로 교사 자신의 전문적 발달을 위하여 스스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자기장학은 자기수업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자기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활동으로, 1인 1 과제 연구 혹은 개인연구, 전문 서적·자료 탐독, 대학원 수강, 전문기관과 전문가 방문 및 상담, 현장 방문 및 견학, 교과연구회와 학술회, 강연회 참석 등을 포함한다(이윤식, 2007). 자기장학은 교사 자신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교사의 성공적인 자기장학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의 교내 자율장학의 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이 지원, 격려하고 필요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윤식, 유현숙, 1989).

약식장학이란 교장, 교감이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학급순시나 수업참관을 통하여 교사들의 수업활동과 학급경영 활동을 관찰하고 이에 대하여 교사들에게 지도 및 조언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교장, 교감의 계획과 주도하에 전개되는 비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활동이다. 약식장학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장학활동이라서 일상장학(日常獎學)이라고 칭할 수도 있다(강영삼, 1994; 이윤식, 2007).

자체연수는 교내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내 외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연수활동이다. 자체연수는 학교가 주도하는 연수로서 연수의 장소가 교내뿐만 아니라 야외연수, 현장견학 및 탐방 연수 등과 같이 교외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체연수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일반 교사, 행정 및 관리직원을 포함하여 교내 외의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나 장학요원들이 연수담당자가 되어 진행된다(서갑순, 2005; 이윤식, 2007).

2. 중등학교 각 교과 별 교내 자율장학 관련 선행연구

중등학교의 각 교과 별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체육교과가 가장 활발하다. 추병화(1997)는 체육교과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교구의 적정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장학 협의활동의 적절한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장학담당자와 수혜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장학담당자의 자질 향상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체제의 확립을 지적했다. 정경미(2002)의 ‘중등체육장학의 실태’라는 연구에서 체육 장학협의시 중점을 두는 사항은 ‘교육과정의 운영’, ‘교수·학습지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 위주의 수업진행과 정보화 추진에 따른 다양한 수업매체의 제작 활용에 관심이 높았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권위적인 분위기의 장학지도보다 현장의 교사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장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교과의 교과장학관련 연구로 모경환과 박영석(2004)의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과 장학 개선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실제 학교 현장의 장학 활동은 교사의 수업 활동에 대한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감독과 통제로 이해되어 실제 수업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과 장학의 새로운 방향으로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협력적 장학, 수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임상장학, 교사의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장학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과 교과장학에서 사회과 교사의 교과에 대한 이해, 교수·학습 방법 선택, 교과 관련 지식, 교사의 개인적 실행이론, 교사문화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 장학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정교과관련 장학 연구로 실행된 것은 남윤진과 채정현(2008)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은 자기장학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수학습방법에서 그 필요성을 가장 높게 느껴 협동학습이나 토론법 등 학습자 중심 수업 지도 능력을 갖기를 원했다. 가정교과의 수업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기장학 유형 중 현장견학, 각종 연수 참여, 대중매체의 활용, 연구회 및 모임 참여, 동료교사와의 정보 공유 등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잡무로 인한 시간 부족, 의욕 부족, 경제적·환경적 여건 부족이 자기장학에 지장이 된다는 지적은 타교과와 같았다. 활성화를 위해 이런 부분의 해소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연수 및 학회에의 참여기회 확대,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지원 요구가 높았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자와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중학교에서 가정교과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가정과 교사이다. 연구대상자의 표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7년 교육통계연보에 근거하여 2009년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다양한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이용해 2,809개 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비공개시에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가정과 교사와 직접 통화해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였는데 그 수는 529개 이었다. 이렇게 수집된 전국의 가정과 교사 총 529명에게 2009년 9월 13일에 한글 2002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파일로 첨부하여 1차 발송하였다. 그 결과 1차 수신 확인된 것은 198부이며, 그 중 97부만 설문지에 응답하여 회신하였고(회수율 49.0%), 응답하지 않은 교사 389명(존재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휴면상태에 들어간 이메일 43개 제외)을 대상으로 9월 22일 2차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2차 발송 결과 수신확인된 것이 102부이며 그 중 53부가 회수되어(회수율 53.9%) 총 152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무성의한 응답 2부를 제외한 150부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메일에는 연구자의 신상과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를 쓰고, 설문 결과는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하면서 설문에 적극 응답해 줄 것을 내용으로 발송되었다.

2. 조사 도구와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 실태 및 개선방안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지법이 사용되었다. 조사도구는 이윤식(2007)과 주삼환(2003b)의 문헌을 바탕으로 교내 자율장학과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남윤진·채정현, 2008; 박진희, 2008; 배선애, 2001; 조현열, 2005; 최서영, 2007; 한숙경, 2003)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하고 보완하여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2009년 7월 23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개발되었다. 그 후 가정교육 전문가 1인, 교육대학원(가정교육전공)에 다니고 있는 가정과 교사 2인, 국어교과사 1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아 문제를 수정

하고 보완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조사도구로 2009년 9월 7일부터 12일까지 현장의 중학교 가정과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표 1>에서 보듯이,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의 인식(5문항), 수행실태(11문항)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4문항)으로 주로 선다형과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료는 SPSS/Win(ver 10.1)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제시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답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와 T-test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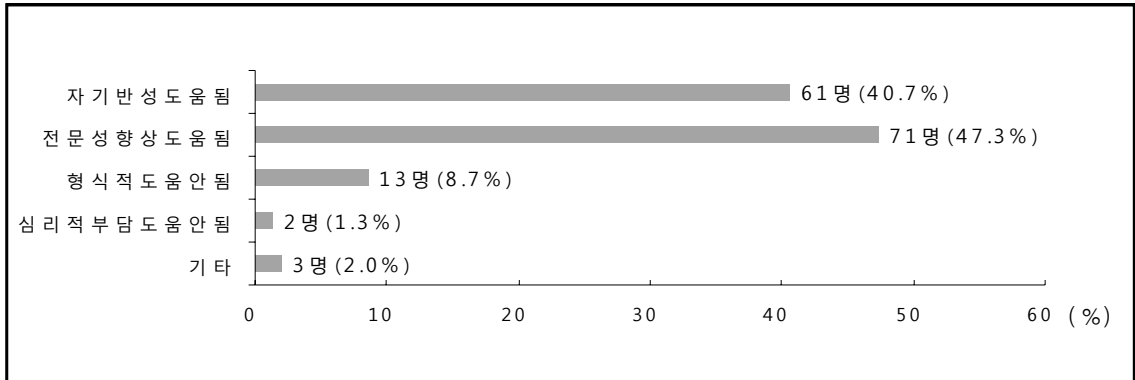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교직경력 6-10년(24.7%)이 가장 많았고, 나머

<표 1>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 인식과 실태 설문지의 구성

영역	세부내용	문항의 종류
1. 인식(5문항)	1)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의 도움 여부 인식	선다형
	2)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 유형	
	3) 가장 선호하는 교내 자율장학담당자	선다형
	4) 장학 실행 후 평가로 적절한 방법	Likert 5점 척도
	5) 요구사항	
2. 수행실태 (11문항)	1) 목표선정 및 계획 수립자	선다형
	2) 가장 활성화된 유형	
	3) 장학 유형별 실시횟수	
	4) 장학 유형별 수업 개선의 도움정도	
	5) 장학 유형별 수업개선에 도움을 주는 분야	
	6) 교내 자율장학 담당자의 지원 태도	
	7) 동료교사와의 정보공유 정도	
	8) 동료교사와 정보공유가 잘 안되는 이유	
	9) 공개수업 참관자	
	10) 수업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업공개자	
	11) 장학을 잘 실행 하지 않는 이유	
3. 일반적 특성 및 인식 4문항)	교직경력, 학교소재, 최종학력, 발령교과	선다형



[그림 1]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의 도움 여부 인식

지 교직경력(5년 이하(16.0%), 11-15년(10.7%), 16-20년(14.7%), 21-25년(16.7%), 26-30년(15.3%))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근무하는 학교소재지는 특별시광역시(45.3%)와 중소도시(43.3%)가 반씩 비슷하였고, 읍면지역은 11.3%로 적었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석사과정 또는 석사학위자(48.7%)와 학사학위자(44.7%)가 비슷하게 많았으며 박사과정이나 박사출신은 6.7%이었다. 발령교과는 대부분 가정교과발령(93.3%)이었으며 기술교과발령은 6.0%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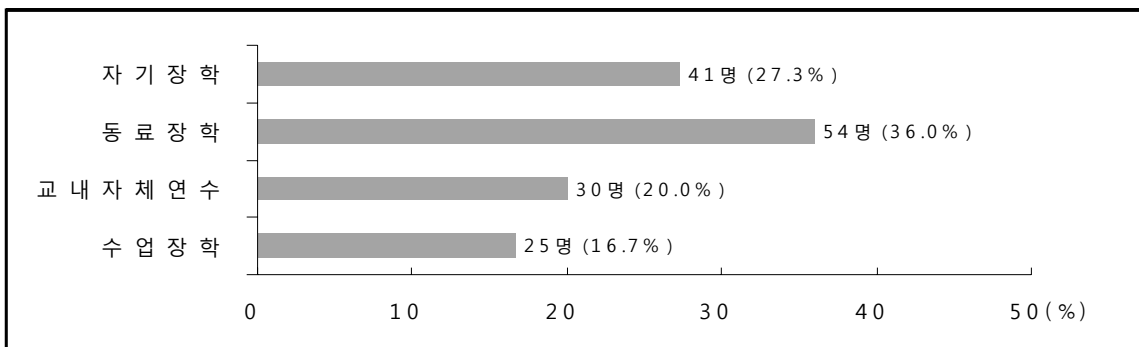
2.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인식

가.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의 도움 여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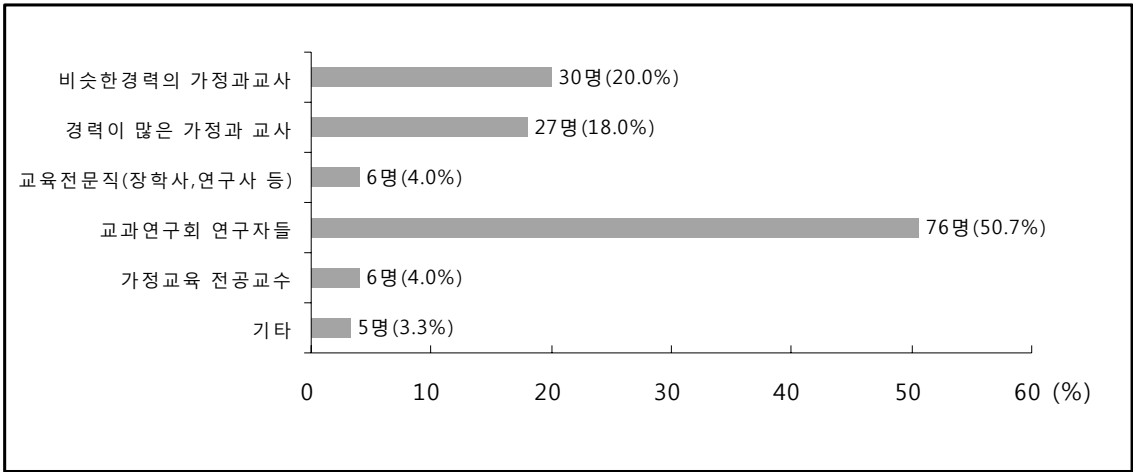
중학교 가정교과 교사들의 교내 자율장학의 도움 여부에 대

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그림 1]과 같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47.3%)와 ‘자기반성에 도움이 된다’(40.7%)고 하여 대부분(88.0%)이 교내 자율장학이 가정교과수업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적은 수는 ‘형식적이라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8.7%)와 ‘심리적 부담이 되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1.3%)라고 하여 교내 자율장학이 가정교과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녀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서갑순(2005)의 연구 결과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연구에서는 32.5%만이 교내 자율장학이 전문성 향상과 자기반성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67.4%의 교사는 형식적이고 심리적 부담을 주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림 2]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 유형



[그림 3] 가장 선호하는 교내 자율장학 담당자

나.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 유형

중학교 가정교과 교사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아래 [그림 2]와 같이 응답자의 36.0%가 교사 상호간의 지도, 조언을 통한 동료장학으로 답하였고, 교사 스스로 계획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자기장학이 27.3%, 교내 자체연수가 20.0%, 동료 수업 연구에 참여한 후 교과협의회를 통한 지도 및 조언활동인 수업장학이 16.7%로 나타났으며 교장과 교감의 가정과 수업참관을 통한 지도, 조언활동인 약식장학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내 자율장학의 가장 유익하고 바람직한 형태로서 교사들은 교사 자신이 주체가 된 동료장학과 자기장학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최금중(2005)과 배선애(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또한 정영애(2007)의 연구에서 약식장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낄 뿐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잘 실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해 중학교의 타과 교사들과 가정과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내 자율장학의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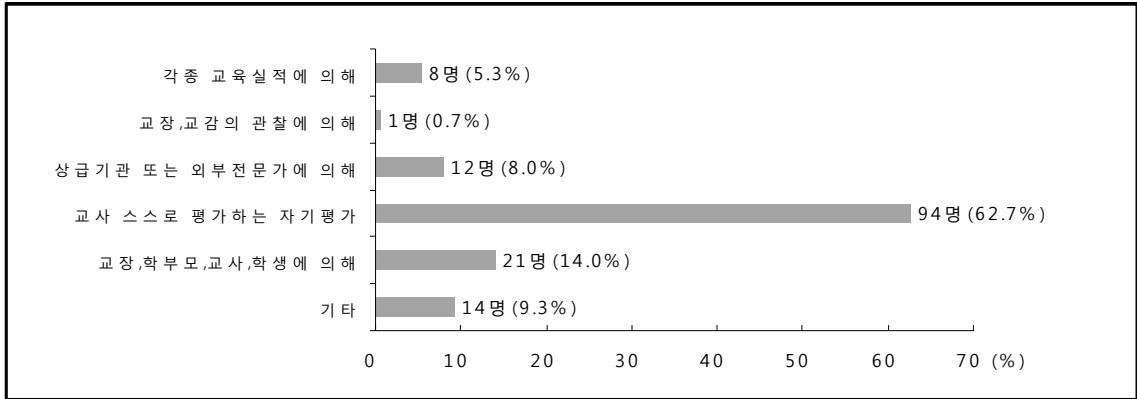
다. 가장 선호하는 교내 자율장학담당자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이 수업의 개선을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교내 자율장학담당자를 알아본 결과, [그림 3]과 같이 응답자의 반 정도(50.7%)가 ‘교과연구회에서 함께 연구하는 교사들’이라 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비슷한 경력의 가정과 교사’(20.0%)와 ‘경력이 많은 가정과 교사’(18.0%)라고 응답하였다. 소수는 ‘장학사, 연구사 등과 같은 교육전문가’(4.0%), ‘가정교육전공교수’(4.0%)라고 하였다. 기타로는 ‘수업발표대회에서 수상한 교사와 경력이 높은 교사’가 아이디어가 많아서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자율장학의 지도자로 84.4%가 ‘동료교사’를 선호한 배선애(200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대부분의 교사는 수업개선을 위한 도움을 경력이 비슷하거나 많거나 함께 연구하는 동료 교사에게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교내 자율장학 실행 후 평가로 적절한 방법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이 교내자율교내 자율장학 실행 후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그림 4]에서와 같이 반 이상(62.7%)의 가정과 교사는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평가’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소수는 ‘상급기관 또



[그림 4] 교내 자율장학 실행 후 평가로 적절한 방법

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8.0%), '교장, 학부모, 교사와 학생에 의한 전면 평가'(14.0%), '각종 교육실적에 의한 평가'(5.3%)를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9.3%)으로는 '모든 평가방법'이 다 필요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교수-학습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수업평가를 희망하였다.

지원'(3.85)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윤진과 채정현(2008)의 연구에서 자기장학 개선을 위한 요구도가 모든 조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던 것과 일치한다.

3.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 수행실태

마. 교내 자율장학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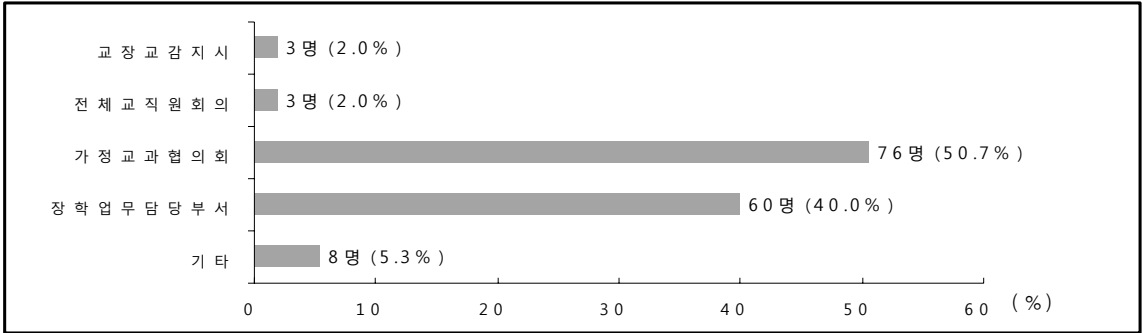
가. 목표선정 및 계획 수립자

교내 자율장학 개선을 위하여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이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요구사항을 알아본 결과 5점 만점에서 <표 2>와 같이, '잡무경감 및 시간적 여유'(4.67), '가정교육학에 대한 확실한 철학 연수'(4.56),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연수'(4.48),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4.45) '도서, 자료, 도구, 장소 등 물리적 지원'(4.44), '교내 가정과 동료교사가 없는 경우 관내에서 가정과 교사들과의 연계'(4.14), '장학담당자인 교장, 교감의 장학에 대한 적극적

교내 자율장학의 목표 선정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 결과 [그림 5]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교사는 '가정교과협의회'(50.7%)와 '장학업무 담당부서의 계획'(40.0%)을 통해서 목표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소수는 '교장, 교감의 지시'(2.0%)와 '전체 교직원회의'(2.0%)에서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개인의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 주관 가정교과 연구회'(5.3%)를 통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2> 교내 자율장학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잡무경감 및 시간적 여유확보	가정교육학에 대한 확실한 철학연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연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도서, 자료, 장소 등 물리적지원	관내 가정과 교사와의 연계	장학담당자 (교장,교감)적극적 지원
평균	4.67	4.56	4.48	4.45	4.44	4.14	3.85
표준편차	0.56	0.60	0.58	0.62	0.56	0.71	0.85



[그림 5]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의 목표 선정 및 계획 수립자

이러한 결과는 교내 자율장학 운영을 계획할 때 대부분의 교사가 교사 상호간(동교과)의 협의에 따르는 편이라고 보고한 최금중(2005)과 최서영(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나. 교내 자율장학 유형별 실시횟수와 장학 유형별 도움정도

1) 교내 자율장학 유형별 실시 횟수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의 유형별 실시 횟수는 <표 3>에서 보듯이, 동료의 수업연구 참관 후 교과협의회를 통한 지도, 조연 활동인 수업장학은 ‘1년에 1회정도 실시한다’가 반 이상(69.3%)으로 가장 높았고, ‘실시 안함’이 6.7%, ‘2년에 1회 정도’는 4.7%, ‘학기당 1회정도’가 16.0%, ‘수시로 실시한다’는 3.3%였다.

교사 상호간의 지도, 조연을 통한 동료장학은 ‘수시로 한다’가 반 정도(50.0%)로 가장 높았고, ‘실시 안함’은 12.0%,

‘2년에 1회 정도’가 소수(1.3%), ‘1년에 1회 정도’ 21.3%, ‘학기당 1회 정도’ 14.0%로 나타났다.

교사 스스로 계획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자기장학은 ‘실시 안함’ 2.0%, ‘2년에 1회 정도’는 소수(0.7%), ‘1년에 1회 정도’ 4.7%, ‘학기당 1회 정도’ 6.7%, ‘수시로 실시한다’는 응답이 대부분(84.7%)으로 가정과 교사들의 자기장학 연구인 남윤진과 채정현(2008)이 실시한 연구 결과, 즉 가정과 교사들이 자기 장학의 실행을 보통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교장, 교감선생님의 수업참관을 통한 지도와 조연 활동인 약식장학은 반 이상의 교사(52.0%)가 ‘1년에 1회 정도 실시한다’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실시하지 않음’도 22.7%로 많았으며, ‘2년에 1회 정도’가 14.7%, ‘학기당 1회 정도’ 8.7%, 그 외 1.3%가 ‘수시로 실시한다’의 순으로 응답했다.

자체연수의 경우는 ‘2년에 1회 정도’가 2.0%, ‘1년에 1회 정도’가 21.3%, ‘학기당 1회 정도’가 12.7%, ‘수시로’가

<표 3> 교내 자율장학 유형별 실시 횟수

실시횟수 \ 유형	N(%)				
	수업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약식장학	자체연수
실시 안함	10(6.7)	18(12.0)	3(2.0)	34(22.7)	76(50.7)
2년에 1회 정도	7(4.7)	2(1.3)	1(0.7)	22(14.7)	3(2.0)
1년에 1회 정도	104(69.3)	32(21.3)	7(4.7)	78(52.0)	32(21.3)
학기당 1회 정도	24(16.0)	21(14.0)	10(6.7)	13(8.7)	19(12.7)
수시로	5(3.3)	75(50.0)	127(84.7)	2(1.3)	18(12.0)
기타	0(0)	2(1.3)	2(1.3)	1(0.7)	2(1.3)
전체	150(100)	150(100)	150(100)	150(100)	150(100)

〈표 4〉 교내 자율장학 유형별 수업 개선의 도움정도

		N(%)				
도움정도	유형	수업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약식장학	자체연수
	매우 그렇다	14(9.3)	25(16.7)	59(39.3)	5(3.3)	14(9.3)
	대체로 그렇다	68(45.3)	77(51.3)	67(44.7)	35(23.3)	40(26.7)
	보통이다	51(34.0)	29(19.3)	19(12.7)	49(32.7)	18(12.0)
	그다지 그렇지 않다	7(4.7)	1(0.7)	2(1.3)	24(16.0)	4(2.7)
	전혀 그렇지 않다	0(0)	0(0)	0(0)	3(2.0)	0(0)
	전 체	140(93.3)	132(88.0)	147(98.0)	116(77.3)	76(50.7)
	평균	3.64	3.95	4.24	3.13	3.84
	표준편차	0.73	0.66	0.73	0.88	0.78

12.0%, ‘가정교과관련 자체 연수 내용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반 정도(50.7%)로 가장 높아 가정교과만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연수는 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내 자율장학 유형별 수업 개선의 도움정도

교내 자율장학의 유형별 실시회수에서 미실시한 유형을 제외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도움 정도를 알아본 결과, <표 4>

에서 보듯이 반 이상(54.6%)의 교사가 수업장학이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소수(4.7%)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동료장학은 68.0%의 교사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아주 소수(0.7%)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자기장학에 대해서 대부분(84.0%)의 교사가 도움이 되고 자체연수는 36%의 교사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약식장학의 경우는 26.6%만이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한 반면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내 자율장학 유형 별 수업 개선을 위한 도움 정도 차이

변인	유형	수업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약식장학		자체연수	
		M(SD)	F(t)	M(SD)	F(t)	M(SD)	F(t)	M(SD)	F(t)	M(SD)	F(t)
교 직 경 력	10년 이하	3.64 (0.70)	0.030	3.98 (0.63)	0.383	4.39 (0.58)	2.447	3.29 (0.92)	1.599	3.77 (0.92)	1.731
	11 - 20년	3.66 (0.84)		4.00 (0.76)		4.22 (0.85)		3.04 (0.96)		3.68 (0.78)	
	21년 이상	3.62 (0.71)		3.88 (0.63)		4.08 (0.77)		2.97 (0.74)		4.09 (0.52)	
학 교 소 재 지	특별시·광역시	3.60 (0.66)	1.062	3.89 (0.59)	2.033	4.18 (0.74)	2.386	3.02 (0.84)	2.091	3.76 (0.86)	0.309
	중·소도시	3.72 (0.83)		4.07 (0.70)		4.38 (0.73)		3.30 (0.93)		3.91 (0.74)	
	읍·면·지역	3.43 (0.51)		3.71 (0.73)		4.00 (0.61)		2.87 (0.74)		3.86 (0.69)	
최 종 학 력	학사	3.75 (0.62)	1.959	3.98 (0.60)	2.074	4.30b (0.63)	4.421*	3.23 (0.88)	1.537	3.76 (0.79)	0.447
	석사	3.51 (0.76)		3.88 (0.70)		4.29b (0.74)		3.00 (0.89)		3.94 (0.70)	
	박사	3.78 (1.10)		4.38 (0.74)		3.60a (0.97)		3.44 (0.73)		3.80 (1.30)	
발 령 교 과	가정	3.58 (0.71)	(0.054)	3.93 (0.66)	(0.147)	4.24 (0.68)	(3.006*)	3.13 (0.86)	(12.05*)	3.86 (0.78)	(0.041)
	기술	4.33 (0.71)		4.22 (0.67)		4.22 (1.30)		3.11 (1.17)		3.60 (0.89)	

〈표 6〉 교내 자율장학 유형별 도움을 주는 분야

		N(%)				
교과분야	유형	수업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약식장학	자체연수
	가정교육내용	10(6.7)	24(16.0)	52(34.7)	1(0.7)	14(9.3)
	가정교육철학	1(0.7)	5(3.3)	11(7.3)	5(3.3)	8(5.3)
	가정교육평가	3(2.0)	16(10.7)	5(3.3)	3(2.0)	8(5.3)
	가정과교수방법	67(44.7)	56(37.3)	58(38.7)	31(20.7)	23(15.3)
	기 타	1(0.7)	1(0.7)	0(0)	0(0)	1(0.7)
	전 체	82(54.7)	102(68.0)	126(84.0)	40(26.7)	54(36.0)

18.0%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교내 자율장학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도움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기장학’(4.24)이었고, 그 다음에 ‘동료장학’(3.95), ‘자체연수’(3.84), ‘수업장학’(3.64), ‘약식장학’(3.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서영(2007)의 연구에서 63.0%의 교사가 동료장학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자기장학은 14.9%의 교사만이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교내 자율장학의 유형별로 수업 개선을 위한 도움정도가 가정과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교직경력, 학교소재지, 최종학력, 발령교과, 현재교수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수업개선을 위한 자기장학의 도움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최종학력’과 ‘발령교과’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사학위를 받은 교사’(4.30)가 ‘박사학위를 받은 교사’(3.60)보다, 그리고 ‘석사 학위를 받은 교사’(4.29)가 ‘박사 학위를 받은 교사’(3.60)보다 교사 스스로 계획하는 활동인 자기장학이 수업 개선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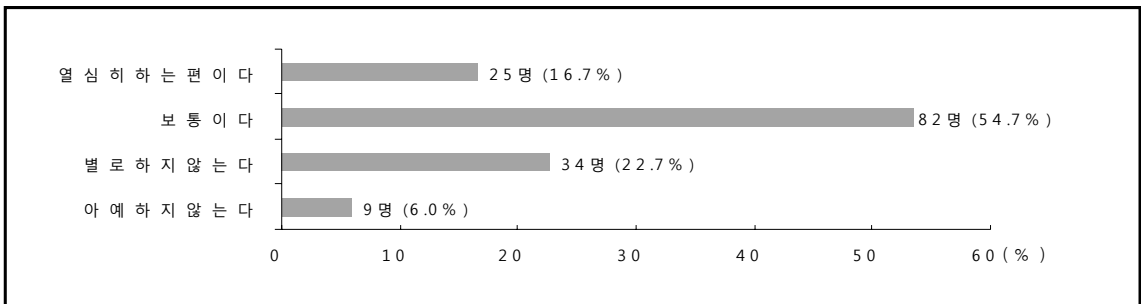
나타났다. 발령교과의 경우에는 ‘가정발령교사’(4.24)가 ‘기술 발령 교사’(4.22)에 비해 자기장학이 수업 개선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약식장학의 도움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발령교과’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발령교사’(3.13)가 ‘기술발령 교사’(3.11)에 비해 교장, 교감선생님의 수업 참관을 통한 지도와 조언 활동인 약식장학이 수업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장학, 동료장학, 그리고 교내 자체 연수의 수업 개선을 위한 도움 정도는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교내 자율장학 유형별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는 분야

교내 자율장학의 유형별 수업 개선 도움의 정도에서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에 응답한 교사들에게 가정과 교육의 어떤 면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 교과와 관련된 분야를 제시하여 선다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림 6] 교내 자율장학 담당자의 지원 태도

<표 6>에서 보듯이, 수업장학에서는 ‘가정과교수방법’(44.7%) 이, 동료장학에서도 ‘가정과교수방법’(37.3%)과 ‘가정교육내용’(16.0%), 자기장학에서는 ‘가정과교수방법’(38.7%)과 ‘가정교육내용’(34.7%), 약식장학에서는 ‘가정과교수방법’(20.7%), 그리고 자체연수에서는 ‘가정과교수방법’(15.3%)이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가정과교수방법은 교내 자율장학의 모든 유형에서 가장 도움을 받은 분야이며 가정교육내용은 자기장학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료장학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각 특성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과교수방법’ 영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정교육내용’ 영역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장학의 유형과 상관없이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를 ‘가정과교수학습방법’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윤진과 채정현(2008)의 연구에서 가정과수업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제로 그 필요성을 가장 느끼며 또한 가장 많이 실행하는 자기 장학 분야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때의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질문에 ‘가정과교수학습방법’이라고 54.0%가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고, 58.0%가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라. 교내 자율장학 담당자의 수업 개선 지원 태도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이 느끼는 장학담당자의 수업 개선 지원 태도를 알아본 결과, [그림 6]과 같이 ‘열심히 하는 편이다’가 16.7%, ‘보통이다’가 54.7%, ‘별로하지 않는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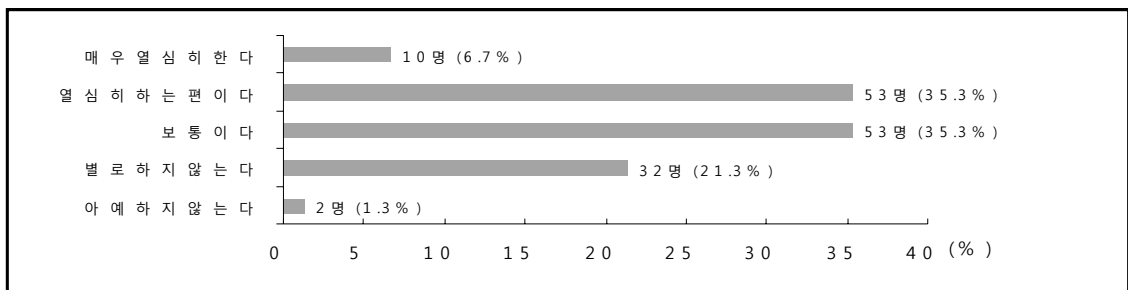
22.7%, ‘아예하지 않는다’가 6.0%로 나타났다.

마. 동료교사와의 정보공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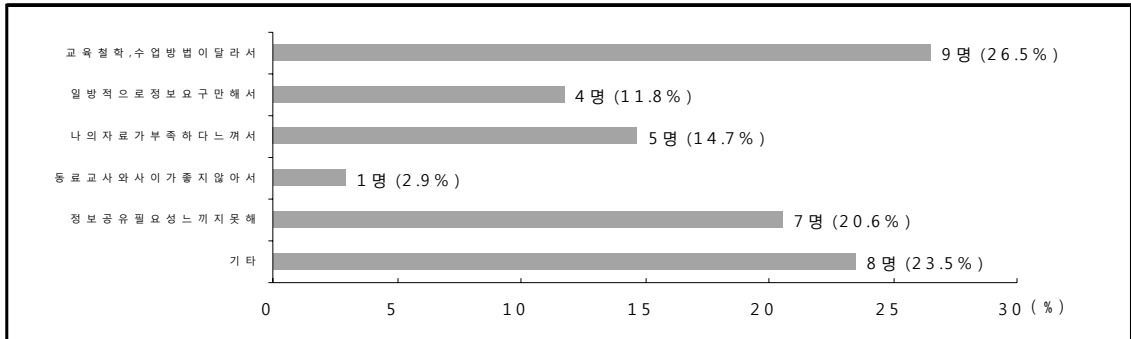
교내 자율장학을 위해서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이 동료 가정과 교사와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가를 알아본 결과 [그림 7]에서 보듯이, ‘보통이다’(35.3%)와 ‘열심히 하는 편이다’(35.3%)가 비슷하게 많았고, 다음으로 ‘별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정과 교사도 21.3%나 되었다. 42.0%의 가정과 교사는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윤진과 채정현(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바. 동료교사와 정보공유가 잘 안되는 이유

중학교 가정과 교사 중에 동료교사와 정보공유를 ‘아예 하지 않는다’와 ‘별로 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3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그림 8]과 같이 ‘교육철학과 수업방법이 달라서’(26.5%),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0.6%), ‘일방적으로 정보를 요구만 해서’(11.8%), ‘나의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서’(14.7%), 기타(23.5%)로 응답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내 가정과 교사가 혼자라서 타교의 가정과 교사와의 정보공유를 수시로 하기가 어렵다와 정보공유를 할 만한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림 7] 동료 가정과 교사와의 정보공유정도



[그림 8] 동료교사와 정보공유가 잘 안되는 이유

사. 공개수업 참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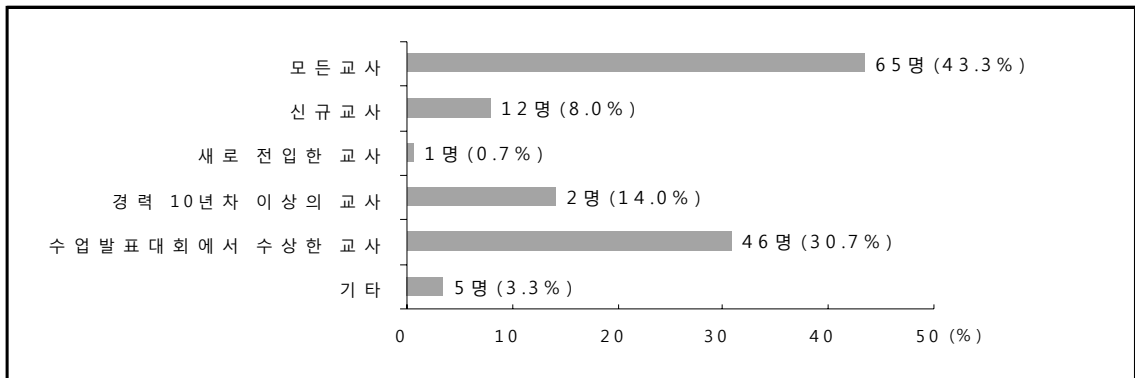
교내 자율장학 중 가정교과 수업장학을 실시할 때 수업공개에 참석하는 교사가 누구인지에 본 결과, ‘교장과 교감, 업무담당교사, 기술, 가정과 교사 참석’(31.3%)이 가장 높고, ‘교장과 교감, 업무담당교사, 기술, 가정과 교사에 희망하는 타교과 교사까지의 참석’(28.7%), ‘교장과 교감, 업무담당교사 및 가정과 교사 참석’(25.3%), ‘업무담당교사와 기술, 가정과 교사의 참석’(8.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정교과 수업연구를 실시할 때 교장, 교감선생님과 기술교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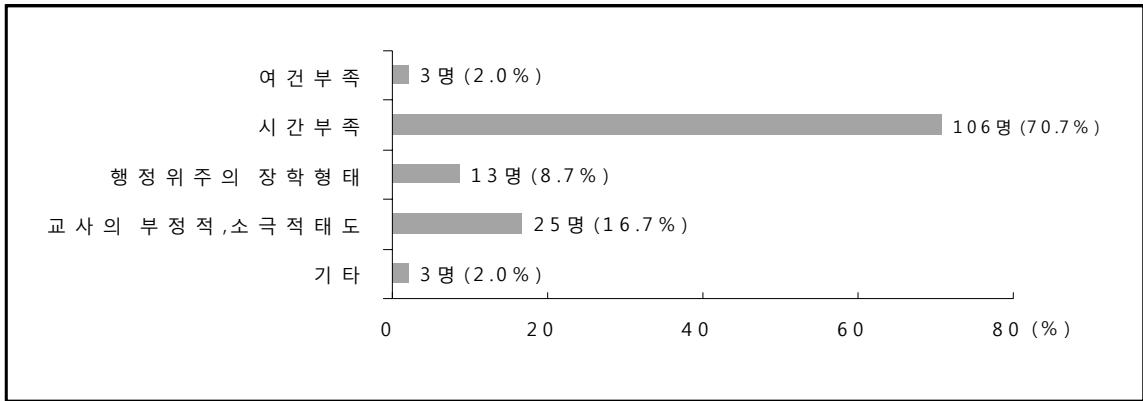
아. 수업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업공개자

수업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업공개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결과, [그림 9]와 같이 재직 중인 ‘모든 교사’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 정도(43.3%)로 가장 높고, ‘수업발표대회에서 수상한 교사’(30.7%), ‘경력 10년차 이상의 교사’(14.0%), ‘신규교사’(8.0%), ‘기타’(3.3%)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자 했으며 수업발표대회에서 수상한 교사의 수업에 특별함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선애(2001)의 연구에서 “교내 자율장학시 시범(연구)수업은 어떤 교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54.7%는 ‘시범(연구)수업을 희망하는 교사’,



[그림 9] 수업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업공개자



[그림 10] 교내 자율장학을 잘 실행 하지 않는 이유

35.7%는 ‘수업기술이 우수한 교사’라고 응답하여 수업을 잘 하는 교사보다 수업 공개를 희망하는 교사가 오히려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결과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자. 교내 자율장학을 잘 실행 하지 않는 이유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이 교내 자율장학이 잘 실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그림 10]과 같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대부분(70.7%)이었으며,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행정 위주의 장학형태’(8.7%), ‘교사의 교수-학습 개선활동에 대한 부정적·소극적 태도’(16.7%), ‘경제적·환경적 여건부족’(2.0%), 기타(2.0%)로 나타났다.

이는 최영화(2005)의 연구결과 중 자율장학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이유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시간 부족을 들었던 것과 박진현(2001)의 연구에서 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위해 수업부담 및 잡무 축소 등으로 교내 자율장학 수행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의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에 관한 인식 및 수행실태,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 개선을 위한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가정과 교사의 가정교과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의 인식과 수행실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가정과 교사는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이 ‘자기반성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장학은 ‘동료장학’이었다.

둘째, 대부분의 가정과 교사는 장학담당자인 교장, 교감과 동료교사로부터 장학에 대한 실제적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가정과 교사는 교내 자율장학의 개선을 위해 동료교사와의 다양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편이나 약 20%에 달하는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은 ‘동료교사와 교육철학이나 수업방법이 달라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자신의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 ‘일방적으로 정보를 요구만 해서’ 등의 이유로 정보공유를 기피하고 있었다. 교수학습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수업공개자로는 반 정도의 교사가 ‘모든 교사’라 응답하여 교과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의 수업 공개를 통하여 자신의 수업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수업발표대회에서 수상한 교사들의 특별한 수

업'을 참관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셋째, 가정교과 관련 교내 자율장학이 잘 실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가정과 교사 스스로의 교수-학습 개선활동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태도',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행정위주의 장학형태', '경제적, 환경적 여건부족'이었다. 중학교 가정과 교사는 장학담당자로 '교과연구회에서 함께 연구하는 교사'처럼, 항상 열심히 교수-학습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교사를 선호하고 있었다. 교내 자율장학의 수행 후 평가방법으로는 교사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평가'를 가장 선호하였다.

넷째, 교내 자율장학 개선을 위해서 '잡무경감 및 시간적 여유, 가정교육학에 대한 확실한 철학,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인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도서, 자료, 도구, 장소 등 물리적 지원, 교내 가정과 동료교사가 없는 경우 관내에서 가정과 교사들과 연계, 장학담당자(교장, 교감)의 장학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다섯째,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의 목표 선정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반 정도의 가정과 교사들은 장학의 목표 선정 및 계획 수립 과정이 가정교과협의회 거쳐서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교내장학의 유형별 실시 횟수의 경우 수업장학과 약식장학은 '1년에 1회 정도'가 가장 많았고, 가정교과관련 자체연수는 실시되지 않는 편이며, 동료장학과 자기장학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관계없이 가장 많이 실시되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장학은 자기장학과 동료장학이었다. 장학에 도움을 얻는 분야는 장학 유형에 상관없이 '가정과교수방법'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가정교육내용', '교육평가', 그리고 '교육철학' 순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수행정도는 높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내 자율장학의 개선을 위한 요구에서도 나타났지만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 적용된 '가정과 철학과 실천적 추론 수업에 대한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가정과 교사들이 임용 후에도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교내 자율장학을 통하여 꾸준한 전문성 신장을 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의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 과정에서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의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확률표집하여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교과 관련 교내 자율장학의 인식과 실태를 설문지로 알아보았기에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인 면담법이나 관찰법을 사용하여 가정교과 관련 교내 자율장학의 요구와 실태를 깊이 있게 알아보아서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2010년부터 실행되었기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교실 현장에서 순조롭게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사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장학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영삼(1994). **장학론**. 서울: 세영사.

강후동(2007). 초등학교 영어 수업장학 활동의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 **영어 교육연구**, 19(4), 139-166.

곽진현(2001). **교내 자율장학의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교육인적자원부(200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0].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과정 해설(기술가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 및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수학, 과학, 기술가정, 207-267.

김경수(2008). **초등학교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문규, 문부환(2004). 초등 체육수업에서 적극적인 장학과 학생

- 의 신체활동 참여수준. **한국스포츠교육학회**, 11(3), 135-150.
- 남윤진·채정현(2008). 중학교 가정교사의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과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한 요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1), 45-62.
- 남정걸(2001). **장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모경환, 박영석(2004).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과 장학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과 교육**, 43(1), 61-85.
- 박진희(2008). **중학교 교내 자율장학의 실태 분석 : 전라북도 전주혁신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배선애(2001). **중등학교 교내 자율장학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갑순(2005). **중학교 교사의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인식 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명환(1996). 중학교 체육수업의 직접교수시간 분석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 3(1), 63-75.
- 양선화(2008).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유치원 교육활동 실태 및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원종선(2005). **유아교사의 원내 자율장학 실태와 만족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유종열(2007). 사회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업 장학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14(3), 109-130.
- 이윤식(2007). **학교경영과 자율장학**. 교육과학사.
- 이윤식, 유현숙(1989). 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종일(2003). **자율장학에 관한 일 연구: 경기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금자(2001). **幼稚園 獎學 實態와 認識에 관한 研究**.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경미(2002). **중등 체육 장학의 실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구진(1990). **初等學校 校內自律獎學에 關한 分析的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영애(2007).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혜림(2009). **초등학교 교내 자율장학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순묵(1995). 스포츠 교육학 : 체육 교수 장학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33, 350-354.
- 조순묵(1997). 교사마당 : 체육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장학의 방향 모색. **한국체육학회 회보**, 69, 17-21.
- 조한아름(2009). **수업 장학을 통한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관심 변화**. 한국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현열(2005).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교사 기대수준과 실행 수준의 인식 차이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주삼환(2003a). **학교경영과 교내장학**. 학지사.
- _____(2003b).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장학의 이론과 기법**. 학지사.
- 채정현(2009). **개정 교육과정 이해와 가정 교육의 방향**. 서울가정교사연수자료집.
- 최서영(2007). **교내자율 장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전북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영화(2005). **중학교 자율장학에 대한 교사의 요구 분석**. 동아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종호, 김창경(2002). 초등학교 체육장학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 18(1), 85-103.
- 추병화(1997). **중등체육장학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2007). **제 1회 청람교육 포럼 미래 교육과 교사 전문성**.
- 한숙경(2003). **교내 자율장학 운영에 대한 중등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효수(2000). **초등학교에서의 교내 자율장학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허병기(1997). 장학의 본질이탈: 개념적 혼란과 실천적 오류. **교육학연구**, 35(3), 181-212.
- (2009). **교실친화적 교사의 개념과 주창 배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실친화적 교사양성 기본체제 수립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9-14.
- 홍성희(2000). **초등학교 교내 자율장학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Sergiovanni, T. J. & Starratt, R. J.(2007). **Supervision : A redefinition(8th ed.)**. New York: McGraw-Hill Company.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의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에 관한 인식 및 수행실태를 알아봄으로써 가정과 교사의 가정교과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150부는 SPSS/Win(Ver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ANOVA, T-test로 분석되었다.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 인식에 대해서 대부분(88.0%)의 가정과 교사는 이 장학이 자기반성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장학은 동료장학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교과 교내 자율장학의 목표 선정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반 정도(50.7%)의 가정과 교사들은 이 장학의 목표 선정 및 계획 수립 과정이 가정교과협의회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결정된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교내장학의 유형별 실시 횟수의 경우, 수업장학과 약식장학은 1년에 1회 정도이었고, 자체연수는 실시되지 않는 편이었다. 동료장학과 자기장학은 수시로 이루어졌다.

장학의 유형별 도움의 정도는 자기장학과 동료장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에 도움을 얻는 분야는 장학유형에 상관없이 가정과교수방법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교과내용, 교육평가, 교육철학 순이었다.

넷째, 교장이나 교감과 동료교사의 장학에 대한 실제적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교사와의 다양한 정보공유는 열심히 하는 편이나 아직도 22.6%에 달하는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이 정보공유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정도(43.3%)의 가정과 교사는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수업공개자로 ‘모든 교사’를 꼽았다.

다섯째, 대부분(70.7%)의 가정과 교사는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이 잘 실행되지 않는 이유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 교수-학습 개선활동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태도,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행정위주의 장학형태, 경제적, 환경적 여건부족을 꼽았다. 대부분의 가정과 교사들은 항상 열심히 교수-학습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교사를 장학담당자로 가장 선호하며, 교내 자율장학의 수행 후 평가방법으로는 교사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평가를 가장 선호하였다.

여섯째,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를 위해서 직무경감 및 시간적 여유, 가정교육학에 대한 확실한 철학,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인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도서, 자료, 도구, 장소 등 물리적 지원, 교내 가정과 동료교사가 없는 경우 관내에서 가정과 교사들과 연계, 장학담당자(교장, 교감)의 장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였다.